

## 제4장 서 · 기문 · 기타

### 1. 崔山斗先生 親筆 · 玉笏



崔山斗先生 親筆(좌)  
崔山斗先生 玉笏(우)

- ▶ 韓國名家筆譜三七一面收錄, 崔山斗先生이 安求禮縣監에게 보낸 書信
- ▶ 君之發旆何日明日果歟 五馬意氣吾不欲見呵呵 任後堂進照遲 景昂 君(君)이 깃발을 날리며 발행(發行)할 날이 어느 날이오.

명일(明日)이라 하던데 과연 그리하오. 다섯 필의 말이 의기양양하게  
 나아가는 모습을 내가 보고 싶지 않구료. 하하  
 부임(赴任)한 후에 마땅히 나아갈 것이니 그리 아오. 경앙(景仰)

▶ 이 옥홀은 청백색 옥석으로 된 관리들의 휴대품으로 중종 8년(1511년) 임금께서 신재 최산두에게 하사한 것이라 전한다. 이 옥홀은 몸에 부착한 관복의 휴대품으로 아침 알현때만 패용하였음(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40호).

▶ 一人有慶寶命維新(일인유경보명유신)  
 임금에게 선(善)이 있으면 천명(天命)이 새로워져 국운(國運)이 영원(永遠)하리라.

- ① 一人有慶: 『書經』周書呂刊篇「一人有慶 兆民賴之 其寧惟永」에서 나온 말로 一人은 天子를, 慶은 善을 뜻한다.
- ② 寶命: 天의 天令(天命) 또는 天子의 命令
- ③ 維新: 정치제도 등의 폐습을 개혁하여 새롭게 함.

## 2. 壽星堂記

知郡 金東準 記

城之北有笠亭曰北射亭亭之北有數椽茅屋乃亭之所屬也余一日往觀之一郡父老團聚于此亭論史評農賦詩歎碁了不見一箇射夫余恠而問之曰現時老人之攸居而何以謂之射亭乎座中一老人應之曰前之射夫今爲老人仍作亭之主人相笑而散席矣昨年春郡中老少協議撤亭移建於南林爲年少射鵠之所是歲春老人之子若孫及同志紳士收力斂助增築節堂名之以壽星堂以備老人遊樂之所可謂老少俱得其所噫年少爲老人而謀

之以肯堂老人爲年少而許之以移亭老老幼幼之美風從可見矣苟能推此而化之曦陽之民可躋于華胥之域余有望於是而畧記繼之以詩曰烏紗白接日相尋隱約茅簷半出林南極星光當檻耀西山朝氣入簾深匪材縱乏安民策愛禮猶存養老心安得一拋朱墨惱羣賢席上伴高吟



사진3-32 : 광양 수성당 노인회

## 2. 수성당기(壽星堂記)

현감 김동준 기

성(城)의 북쪽에 입정(笠亭=삿갓정자)이 있었는데 북사정(北射亭)이라 이름하였다. 그 북쪽에 서까래 몇 개로 된 띠집이 있는데 이는 정자에 속한 것이라 하였다. 내 어느 날 가서 보니 한 고을의 향노(鄉老)들이 이 정자에 모여 역사를 논하며 농사일을 평가하고 글을 짓고 또 바둑을 두고 있었으나 활을 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내 괴이(怪異)하게 여겨 물기를 현재 노인이 사는 곳인데 어찌 사정(射亭)이라 하느냐 하였더니 죄중의 한 노인이 대답하기를 「전에 활 쏘는 사람이 오늘의 이 노인이니 즉 정자를 지은 주인이라」 고 하고 웃으면서 자리를 떠나갔다.

작년(1917년) 봄에 고을의 노소(老少)가 정자 철거를 협의하여 남쪽 숲으로 옮겨 세워서 젊은 사람들의 활쏘는 장소로 하였다. 이 해(1918년) 봄에 노인의 아들, 손자들과 또 동지와 신사들이 힘을 합쳐 돈을 거두어 띠집(유당=遊堂)을 하나를 더 지어 수성당(壽星堂)이라 이름하여 노인들의 유락(遊樂)하는 곳을 만들었으니 이른바 노소(老少)가 각각 그 한 바를 다 하였다 할 것이다.

아! 젊은 사람들은 늙은 사람들을 위해 집(수성당) 짓는 것을 도모하였고 늙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을 위하여 활 쏘 정자를 옮기는 것을 허락하였으니 늙은 사람을 늙은이로 여기고 젊은 사람을 젊은 사람으로 여기는 미풍(美風)을 이제서야 보게 되었다. 진실로 이와 같은 것을 미루어 변화해 본다면 희양(曦陽=光陽)의 백성들은 이상 적인 살기좋은 고장의 경지에 오를 것이로다. 내 이에 바라는 것 있어서 간략한 기문(記文)을 짓고 이어 시(詩)를 지으니

관원(官員)과 선비가 날로 찾는 곳에  
 세상에 묻히어 있는 띠집이 띠 숲에 나와 있네  
 남극의 노인성(老人星) 빛은 난간에 비치고  
 서산의 아침 기운은 발(簾) 속까지 스며드네  
 경륜이 없는 사람이 백성을 편히 하는데는 힘 모자라나  
 예(禮)를 좋아하여 노인을 위하는 정은 있네  
 어디 한번이라도 공무(公務)의 피로움 던지고  
 선비들과 한 자리에서 시(詩)를 읊어 보았으면……



사진3-33 : 오로대

### 3. 午露臺記

白雲之窮源有二龍湫地湫居上下距天湫十里而剩縣人遇旱乾祈輒有應以地理則天湫當上而倒稱者以交泰變化能興雲施雨也蓋自天湫<sub>斥</sub>流而上平磬科白湫淵激湍蒼崖峭壁神鬼刻不可名狀而午露臺最寄其上萬林競茂千嶂簇立虎豹熊之攸伏鷹<sub>骨</sub>鷲<sub>鷲</sub>之攸棲<sub>葎</sub>葎<sub>葎</sub>苾苳之靈金銀銅鉛之寶無不興焉其靈倍於他山其下數十步卽地湫<sub>卧</sub>瀑十餘丈雷轟砲動山壑欲裂下受深潭涵碧無底凜若神龍之窟眩慄不可久臨臺上則白石平展清潔無埃優容數十人坐亦一山之奇境也前乎百<sub>撰</sub>撰<sub>撰</sub>秘抉勝者漠無遺跡天其或者餉吾兩人耶每於端午綠葉<sub>葱</sub>葱<sub>茂</sub>茂林糾<sub>攸</sub>攸<sub>攸</sub>則泛匏尊於玉流蒸嘉菜於石鼎和絕<sub>巖</sub>巖<sub>巖</sub>之鹿<sub>叱</sub>叱<sub>聽</sub>聽深樹之鶯歌及夫秋清氣肅寒露適至則嘯傲風月吐納烟霞採千年之琥珀折百腫之靈壽蓋四時之景無尚于此際

而亦溫涼之候最適於已衰之身也故二十年間非有故未嘗或闕於是合二節之遊而刻之曰午露臺聊備山中之故事豈慕白日之飛昇乎兩人謂誰文危齋顯謨黃鼓

菴炳中也甲子九月寒露鼓巖記

### 3. 오로대기

백운의 마지막에 용소가 둘이 있는데 지살고지가 위에 있고 그 밑으로 십리 남짓한 곳에 천살고지가 있다. 주민들이 큰 가뭄이 들면 여기 와서 빌면 이에 응하도다. (비가 내린다)

지리상으로 본다면 마땅히 천살고지가 위에 있어야 할 것이나 이를 거꾸로 칭함은 아래·위 두마리 용이 서로 교대하여 크게 변화된 것으로 능히 구름을 일으켜 비를 만들도다. 천살고지로 부터 조금 오르면 반석은 평평하고 절구통 같은 곳에 물이 고인 곳도 있고 험한 비탈과 기암괴석은 마치 신이 조각한 것 같으니 그 경관을 가히 무어라 형언키 어려운데 그 중에서도 오로대가 가장 기이 하도다.

그 위에 온갖 나무숲이 무성하고 수많은 산으로 에워싸였으니 범·표범·곰 따위 맹수가 살만한 곳이요, 매·황새·학 등도 능히 살수 있는 곳

이고 인삼 · 창출 · 지초 · 작약 등의 영약과 금 · 은 · 동 · 납 등 없는 것이 없으니 그 영험함이 다른 산보다 훨씬 더하더라.

그로부터 수십보 밑에 지살고지가 있는바 비스듬히 이루어진 폭포가 십여 발에 이르러 이 폭포에서 나오는 요란한 소리는 뇌성벽력 같고 이로 말미암아 산과 골짜기가 마치 찢어지는 듯한 요란 하도다. 폭포 아래 깊은 소에 푸른 물이 고여 보이지 않음때 그 늠름함이 마치 신훈의 굴 같아 눈이 어지러워 오래도록 바라 볼 수가 없더라.

오로대 위에는 하얀 돌이 편편하게 펼쳐져 있고 티끌하나 없이 깨끗하며 능히 수십인이 자리 할 수 있으니 또한 한산의 기이한 절경이로다.

지난날을 더듬어보면 이렇게 훌륭한 경치를 즐긴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미루어 하늘이 혹시 우리 양인을 위하여 숨겨두었던 것이 아니겠느냐.

매양 단오 날이면 녹음이 짙어지고 나무는 서로 어우러져 장관을 이루면 이곳에 와서 술을 물에 담가 놓고 나물 캐어 돌술에 찌서 먹을 제 산사슴 우는 소리와 피꼬리 우는 소리를 감상 하도다.

가을이 오면 맑고 기가 엄숙해져 찬이슬 내릴 제 풍월을 읊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오래된 보물을 캐고 옛 스승을 생각하게 되도다.

대개 사시절의 경치가 이에 더할 수가 없으며 또한 기온이 적당하니 나이 든 사람에게 적합하도다 그런고로 이십년간 특별한 일이 없으면 춘추 두철에 와서 놀았기에 오로대라 새겼도다.

부질없이 산중고사를 가지고 시름한 것이여 어찌 한낱에 이슬이 있다 하겠는가.

오로대라 이름짓고 글쓴 사람 누구인고 하니 1924년 9월 한로절에 고암 황병중이 글 짓고 글씨는 위제 문현모 이더라.

#### 4. 居然亭記

長水 黃玟

商山朴永裕以其伯氏同樞公命構亭鳳溪之上請名于宋淵齋先生顏之曰居然屬余記之夫居然云者易之之辭而惟永裕之爲斯亭也起冬月躬親執役手足親家僅以後落之既成而所築之基微陷屋將前曳又招工材桴緯挽間礎與桂而補葺之又僅以後完皆余所往來目覩也其難也如是而今日居然若易焉者不其左歟豈先生之未會見而徒聞一日之茅棟意其易成而然歟雖然事固有始難而



사진3-34 : 거연정

終易者玩其易而忽其難亦人情之常也夫處可以易之勢而恒凜乎其難慎則是必永保其易者也先生命名之義豈苟然哉余舊寓距鳳溪甚邇而未聞溪之勝溪亦無名其曰鳳溪者自永裕倡是時永裕數爲余言之余不之信近因有亭而始得往觀爲溪之上下數十步白石平鋪微有窪凸而水散流其上少旱則凸者畢露點點如棋置可襪而涉石盡而水匯之瀾漪澄碧遊儻可數水上蒼壁環植不過尋丈而屹崿紺翠具雲霞

巖壑之奇幽境若畫沿溯不窮嗟呼溪之勝如此而非永裕無以發之是溪山水石猶有知遇之難而能識夫溪山水石之勝者其人亦不易得也然人之於溪山水石之固有識者好之而雖不好之亦不害爲君子乃永裕力搜勝境於千百年湮廢之區至於構亭以寢處之使一水一石朝夕効其几案之用有若日用常行之不可闕者顧其中必有與流俗異者而況其職分所當爲之事當何如其勉勵也永裕少年飛鷹走馬揮擲千金氣義尙然諾有俊俠之目迨四十後折節讀書往遊淵齋之門談禮學袞袞不知倦盖居然儒者也孔子曰先難後獲非崇德歟今以永裕觀之早年不羈既已歷世途之嶮巖閱人情之姦僞凡所以固衡其心慮開發其智慧者盖嘗之矣而一朝翻然反求立志遠而收效速庶幾乎先難後獲之地而又得先生長者如淵齋者而依歸焉然永裕一生其澡身浴德判然爲兩截人尙如此之易況楹之屋其於居然也何有

#### 4. 거연정기

장수 황현

상산박(商山朴) 영유(永裕)는 봉계위에 정자를 짓고, 송연재선생이 정자 이름을 “居然”으로 지어주었다고 하면서 나에게 그 기(記)를 부탁하는 것이다. 대개 “居然”이란 ‘쉽게 여긴다(易之)’라는 말인데, 오직 영유만이 이런 의미가 담긴 정자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이다. 지난 겨울 몸소 직접 소매를 걷어붙이고 일한 나머지 손발이 트고 벌어질 정도였다. 그러고서야 겨우落成을 보았다. 그런데 축조한 터가 약간 함몰되어 집이 앞으로 쏠리게 되자, 또 다시 목수를 불러 말뚝을 박아 지탱하게 하고 동아줄로 주춧돌과 기둥 사이를 묶고 어느 정도 보수를 한 뒤에야 완성이 되었다. 이 모든 작업을 내가 직접 目觀한 바이다. 그 어려움이 이와 같았는데, 지금 ‘거연(居然)’이

라고 이름을 지었으니, 마치 쉬었다는 느낌을 주고 있는데, 그것은 그 어렵게 했던 사실을 몰랐던 것인가? 어쩌면 선생께서는 일찍이 보지도 않고 그저 어느날 지붕이나 기둥만 쳐다보고 쉽게 만들었겠다 생각하고 그런 이름을 지으신 것인가? 비록 그렇지만 일이란 참으로 시작할 때는 어려워도 끝났고 나면 쉽게 보이는 것인데, 그 쉬운 것만을 쳐다보고 어려운 것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는 것은 역시 인정의 당연한 것이리라. 대개 쉽게 여길 수 있는 여건에 처해서도 항상 그 어렵고 삼가 하는 자세로 조심하면 반드시 그 쉬움(易之)을 영원히 보존 할 수 있을 것이다. 선생께서 명명하신 뜻이 어찌 그저 그런 것이었겠는가? 나는 옛날 살았던 집이 봉계(鳳溪)와 매우 가까웠었는데 그 계곡이 이렇게 좋은 줄은 미처 몰랐었으며, 또한 처음엔 이름이 없었는데, 그곳을 “봉계(鳳溪)”라 부르게 된 것도 영유가 처음으로 한 것이었다. 그때 당시 영유는 여러차례 나에게 얘기를 해주었지만 그래도 나는 믿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정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처음으로 가서 보게 되었던 것이다. 계곡 위아래 수십보에 하얀 바위가 평평히 펼쳐있으며, 약간 불룩하고 오목한 곳이 있어 물이 그 위로 흘러서 흐르며, 조금 가뭄이 들면 오목한 부분이 모두 드러나 점점이 바둑판 같아 버선발로 건널수도 있으며, 바위끝 부분에 물이 소용돌이 치고, 잔잔한 질푸른 물결, 물위의 깎아지른 낭떠러지는 헤아릴 수 있을 정도로 맑으며, 둘레에 심은 나무들은 십장(尋丈 : 여덟자 정도)에 불과하고, 험준하고 푸른빛이 도는 것은 雲霞巖壑의 기이함을 갖추고 있으며, 幽境은 한폭의 그림과 같아 거슬러 올라다보면 흐름이 끊이 없다. 아! 계곡의 勝景은 이와 같다 하더라도 영유가 아니면 발견할 수 없는 것이다. 이 溪山水石은 오히려 만나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능히 계산수석의 승경을 볼 줄 아는 그런 사람 만나기가 또한 쉽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계산수석의 진수를 진실로 알아보는 자만이 좋아하게 된다고 하지만, 비록 좋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역시 군자가 되는데 해롭지 않을 것이다. 곧 영유는 직접 천백년 동안 묻혀 있었던 곳에서 승경을 찾아내어 정자를 짓고 거기서 잠도 자고 거주하면서, 한 개의 물, 한 개의 바위라도 조석으로 그 几案을 삼고, 日用常行에서 빼놓지 않고 있으니, 그 내면을 돌아보면 반드시 流俗과는 다른 데가 있다. 하물며 그 직분의 당위한 일로 여기니 마땅히 그 힘씀이 어떠하겠는가? 영유는 소년시절에 술개처럼 날아다니고, 말처럼 달려 다니며, 천금을 揮擲함에 氣義가 尙然하여, 俊俠의 안목을 지녔었다. 사십에 이른 후에 折節히 독서를 하며, 淵齋의

문하에 往游하면서 예를 얘기하고, 배움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았으니, 거의 거연한 유학자라 말 할수 있을 것이다. 공자는 말씀하시기를 “先難後獲은 崇德이 아니겠는가?” 하시니, 이제 영유를 보면 早年에는 객지에 나가 지 않았지만, 이윽고 世途의 嶮巖을 겪고, 인정의 姦僞를 맞보아, 무릇 그 心慮를 困衡하고, 그 지혜를 개발시키는 것들은 대개 모두 다 유익한 경험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루아침에 翩然히 反求해서 立志가 멀고 收效가 빠르니, 先難後獲의 자리에 거의 이르렀으며, 또한 先生長者를 만나되, 淵齋같은 이를 만나 依歸를 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永裕는 일생동안 그 몸을 닦고 德을 닦아 判然히 兩截人 되는 것을 오히려 이와 같이 쉽게 여기며 해냈는데, 하물며 三楹의 屋에서 居然하는 일이야 그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 5. 永慕齋記



사진3-35 : 영모재  
(김시식지에 위치함)

嗚呼 賊适之亂 朝鮮初有也 君父及於播越 廟算亦至 淒涼 雖或有 勤王舉義之旅 而望風皆潰 雪恥除兇者 百無一二 可勝歎哉 時則 金判書湜 伏劍 起慷慨 賦詩奮身 出義率 僮 手指數百從從 兄襄武公 大戰于鞍峴之下 斬賊將數十 力竭而死 子汝深汝瀾兄弟冒矢石 獲屍返葬于 靈巖先塋之側 事聞于朝 奈原從勳一等 至 萬歷丙子與 兄汝深 赴安牛山倡義之役 追其三從兄水使汝浚之後 至上黨 聞靖 成慟痛哭歸曦陽大仁山下

不書虜號 自靖清以 功 葬于 大山嶺下 子孫仍居焉 越 上王己未春 築一齋於 奈判公墓傍 奈判公即汝瀾也 今宮基洞是也 扁其楣 曰 永慕 近公之八代孫 丁泰書余求齋楣之文 嗚呼 适之亂 丙子之役 忠臣義士 屈指可 覯 而史闕文 不幾無而名不稱者比比 余丁泰君之 意 途走人 乞一字以不朽者 非永慕之意 耶 主 鬯者 相瑋相文 董其役者 相採相武相塚相斌相也

己未南至日 嘉善大夫 前寧邊郡守 海平尹 甯求 記



## 5. 영모재기

아! 도적 이괄의 난은 우리나라에 처음 있는 일이다. 임금께서 파월(播越)하시니 조정의 묘산(廟算 計畧 : 孫子始計 兵未戰而廟算者勝得尊多也)이 서글웠더니 비록 근왕(勤王)하여 의병을 일으킨 군대가 있어도 위세만 보고 모두 달아나니 설욕하고 원흥(元胤)을 제거할 자 백에 한 둘도 없으니 슬픈 일이다. 때에 김식(金湜) 판서가 칼을 잡고 일어나 강개(慷慨)하게 시부를 지어(격문을 내어) 몸을 떨치고 의를 내어 군졸들을 거느리고 손수 지휘하니 수백이 따랐다. 중형인 양무공(襄武公)이 안산(鞍峴) 아래서 크게 싸워 적을 수십을 죽이고 힘을 다하여 죽으니 아들 여심(汝深), 여익(汝瀾) 형제가 시석(矢石)을 무릅쓰고 시체를 찾아 영암(靈巖) 선영 곁에 반장(返葬)하였다. 일이 조정에 보고되자 진무원(振武原) 중훈 일등(從勳 一等)으로 열거되었으며 병자난으로 한때 형 여심과 함께 안우산(安牛山)에 가서 의병을 일으킨 삼중형인 수사 여준(汝駿)의 뒤를 따라 상당(上黨)에 도착되자 강화조약을 맺은 것을 듣고 통곡하고 희양(曦陽) 대인산(大仁山) 아래로 돌아 왔는데 청나라 연호를 사용하지 아니 하였다. 대산등(大山嶺) 능선 아래 장사를 하고 자손들이 거기 살게 되었다. 그 후 숙종(肅宗) 기미년 봄에 참판공(參判公) 즉 여익(汝瀾)이며 지금의 궁기동(宮基洞)에 위치한 중방에 “영모(永慕)”라고 편액하고 공의 팔대(八代)손 정태(丁泰)가 영모재에 대한 글을 나에게 짓게 하였다.

아! 이괄의 난과 병자호란에 있어서 충신과 의사를 손을 꼽을 수 있을 정도인데 사기에 빠져서 이름을 알리지 못하는 것이 비비하다. 정태군이 먼 길을 사람을 보내어 글을 지어 주기를 청하니 불후 하는 것은 영모의 뜻이 아니겠는가? 제사는 상봉(相琫) · 상문(相文)이 주관하고 역사(役事)는 상채(相埰) · 상빈(相斌) · 상수(相綉)가 감독하였다.

기미(己未) 남지일(南至日) 가선대부(嘉善大夫) 전영변군수(前寧邊郡守) 해평(海平) 윤영구(尹甯求) 씌(記)

## 6. 鑑湖亭重建記

往年余爲金應瀾記其藏譜之廣矣近又以其書塾曰鑑湖亭者之重建也要余



사진3-36 : 감호정

終惠之索催如博進相守不去余難其勤因叩其禱起應瀾斂衽對曰吾祖患吾里之陋瓶是亭歲在 憲宗己亥既而患其庫隘葺而敞之歲在 哲宗庚申上梁于八月二十日吾在幼時尚記其詳也屋老將什吾以上年卽其址而重建之蓋歲與瓶時同上梁月日與葺時同同出不謀其蹟頗異茅綸竹松之材匠備之直酒醴之費舉出隣里之樂助故役蔓而不匱其俗頗厚向肯只爭跬步而面勢

稍換江山雲月之觀頓添精采其境頗新但未知隸業於斯者不負亭否是願有記以勗之也余觀世之倚當自豪其奉已之侈濫祚福之損施往往揮金如土至於教子之事擇師買書之資錢厲聲色甚者見有挾冊弄筆硯輒以注劣夫子第不讀書則放慢放肆卽其分也少間身與貨俱銷以吾未老見亦衆矣其或窮巷士之忘其寒餓勞其營度數椽書戶偏側牛宮之畔客至聞唔哦之聲則不問知其有

方與之象雖未遽興其子弟必皆謹拙畏義不失爲鄉里之善人而終必有望焉嗚乎其利害得果何如哉應瀾天資恬介行義多可稱而又能識夫爲人之先務殫力教子之所而並援其鄰里子弟區諸讀書禮讓之區孰謂湖山荒寂之濱乃屈斯人者之世居而竟出流俗乃爾也古云人樂有賢父兄爲應瀾子弟者顧瞻堂構砥礪立揚則營窓雪刀砭砭其窮年想不待余言之贅而芝蘭玉樹固已森然于庭階矣不然而使登賢者抱楹仰屋曰亭則美矣如無其人何此不獨負其亭并負其父兄嗚乎可不懼哉亭之舊也余嘗登焉見江流環其下意其有湖勢而不諦視之或者從今以往水不加涸而益紺清沙不加漲而益晃朗魚鳥不加蕃而益明媚則是人文彪蔚之氣庶有以鑑于湖而可測也余將援筆續記以究鑑湖之說

高宗 庚子穀雨節梅泉山人 黃 玟撰

※번역문 생략

## 7. 鳳樓亭記

雄대한 白雲山の 中幹大脈이 南으로 구불구불 뻗어 내려가 國師峰이 우뚝 솟았고 다시 남으로 내려가다가 開局한 곳이 곧 대실(竹谷)마을이다.

主山과 案山이 마주보고 東쪽에 鷹峰이 솟아 精彩를 말하고 물은 西北에

서 東南으로 잔잔히 흐르고 있으며 水口에는 武公峰이 솟아 마을의 精氣를 지켜주고 있다.

옛부터 청명하고 한적하여 선비들이 글 읽으며 농사에 종사한지 오래되었으니 이른바 別有天地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을에 일찍이 鳳棲齋라는 書堂이 있어서 遠近 書生들이 모여 講學하였으며 특히 조선 후기 英祖때 竹菴 金坤이 進士가 되어 學風을 振作하였다.

金進士의 學問과 鳳棲齋의 學風을 중시한 寶城출신 素史 朴重範은 憲宗 때 光陽으로 移居하여 그 五兄弟와 從弟한 사람이 竹谷과 虎岩 두 마을에 나누어 살면서 素史는 계속 學問에 정진하여 高宗때 進士試에 登第하기도 하였다.

그 후 鳳棲齋는 일제의 침략과 新學問의 流入으로 퇴락하여 없어졌으나 선비의 기개와 면학정신은 綿綿히 이어져 두 마을 後生들의 정신적 支柱가 되고 있으니 연원이 깊은 곳에서 발원한 물이 悠久함과 같이 전통의 영향 또는 長遠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전통을 보존하기 위하여 출향학자 毅松 朴泰相이 鳳棲亭 건립을 발의하였고 마을사람들이 흔연히 동의하여 마침내 光陽市의 지원과 일부 자체 부담으로 옛날에 선비들이 시를 읊던 바위에 奉棲亭을 건립하였으니 이를 계기로 後人들이 鳳棲齋를 연상하고 과거를 추억하며 장래를 전망하면서 詩를 읊고 회포를 풀게 된다면 溫故知新의 의의는 자못 크다 할 것이다.

나는 竹谷과 虎岩마을을 몇 번 찾아 金·朴 두 進士의 行狀과 竹谷·虎岩 두 마을 출신 人士들의 志行에 감동된 바 있었으며 이번 奉棲亭 건립에 즈음하여 毅松선배의 청으로 이 記文을 쓰는 바이다.

西紀 二千三年 五月 日

朝鮮大學校 教授 吳 洙烈 識

## 8. 光陽府院君 李茂芳<sup>1)</sup>

戊午. 光陽府院君李茂芳卒. 茂芳光陽人. 字釋之. 贈贊成事仁英之子. 性廉



사진3-37 : 봉서정

1) 太祖實錄 卷第十四 十九前後面

淡. 孤苦讀書登第. 仕前朝歷官中外. 以廉介見稱. 知事淳昌. 友人過者. 請土物. 公解所佩鞞子. 屬吏賣. 以塞請. 客愧而去. 基爲獻納. 權臣金鏞求見. 托辭不往. 廉悌臣拜侍中. 公曰. 辛丑之亂 棄母而出. 且不隨駕. 豈宣作相. 終不署告身. 及爲掌令. 玄陵葬魯國公主. 執義當封陵. 以俗諺. 封陵者不達. 托故不仕. 公以次封之惟謹. 玄陵重之. 陞爲判典校. 再遷大司憲. 尋陞密直提學. 號推忠佐命功臣. 出爲鷄林尹. 有惠政. 流亡復業. 召拜政堂文學. 甲寅春. 知貢舉. 恭愍<sub>二十</sub>居閑十六年. 壬申門生趙浚當國. 薦爲檢校門下侍中光陽府院君. 卒年八十. 上輟朝. 諡文簡 子稔安國

(太祖實錄卷第十四, 十九前後面)



사진3-38 : 이무방 옛 집터 (추정)

## 8. 광양부원군 이무방

무오(1398년 8월 15일)년에 광양부원군(光陽府院君) 이무방(李茂芳)이 사망(卒)하였다. 무방은 본관이 광양(光陽)이고 자(字)는 석지(釋之)이며, 증찬성사 인영(仁英)의 아들이다. 성품이 청렴하고 욕심이 없어 혼자 고생하면서 글을 읽어 과거에 등제하였고, 고려 왕조에 벼슬하여 중앙과 외방에 관직을 지내면서 청렴하고 결백한 것으로써 칭찬을 받았다. 지순창사(知淳昌事)로 있을 때에 친구로서 지나가던 자가 토산물을 청구하므로, 공(公)이 자기가 차고 있던 칼집을 풀어서 아전에게 부탁하여 토산물을 사서 그의 청을 들어 주니, 손님이 부끄러워서 가버렸다. 그가 헌납(獻納)이란 직책에 있을 때 권신(權臣) 김용(金鏞)이 보기를 청하니 어떤 일을 핑계하면서 가지 않았으며, 염제신(廉悌臣)이 시중(侍中)에 임명되니, 공이 말하

기를 “신축년의 난리에 어머니를 버리고 나갔으며, 또 대가(大駕)를 따르지 않았으니, 어찌 재상(宰相)이 될 수 있겠는가?”하고 마침내 고신(告身)에 서경(署經)하지 않았다. 장령(掌令)이 되어서는 현릉(玄陵: 공민왕)이 노국공주(魯國公主)를 장사하는데 집의(執義)가 마땅히 능을 봉분해야 되는데도 속언(俗諺)에 능을 봉분하는 사람은 현달(顯達)하지 못하다 하는 이유로써 사고를 핑계하고 출근하지 않으니, 공이 차례로써 봉분 짓기를 신중히 하였다. 이에 공민왕이 그를 존중하여 판전교(判典校)로 승진시키고 다시 대사헌(大司憲)에 천직(遷職) 되었다. 얼마 후에 밀직제학(密直提學)으로 승진되고 추충좌명공신(推忠佐命功臣)의 칭호를 받았다. 나가서 계림윤(鷄林尹)이 되어 은혜를 베푼 정사를 하니 유망(流亡)한 사람이 그전의 직업으로 돌아왔다. 임금에게 불리어 정당문학에 임명되고 갑인년(甲寅年) 봄에는 지공거(知貢舉)에 임명되었다. 공민왕이 흥(薨)하니 한가하게 있는 지가 16년이나 되었다. 임신년(壬申年; 태조 즉위년)에 문생(門生) 조준(趙浚)이 국정을 담당하게 되자 그를 천거하여 검교문화시중 광양부원군이 되었다가 졸(卒)하니, 나이 80세였다. 임금이 조회를 폐하고 문간(文簡)이란 시호를 내렸다. 아들로 염(稔)과 안국(安國)이 있다.

## 9. 光陽郡誌序<sup>2)</sup>

邑之有誌紀其蹟也發凡起例始自山川道里風土民俗以至今沿沿革人材物產莫不詳悉大而州府小而郡縣各有所紀誌首揭圖版次列事案彙成一通全篇惟我國朝輿地勝覽亦取三百六十餘邑誌總裁合部以備一國文獻則邑誌之制顧不重歟本縣以如斗小邑僻在海隅經兵禍典籍無所考徵則邑誌所藏置者不過草草凡例而已如晉州叙事所錄姜將軍兄弟忠節炳然漏而不紀外此行誼之可褒仕宦之可錄未知爲幾條則非但見者之慨惜寔爲一邑之欠典於是平謀諸境內之二三鄉士大夫博訪家藏古蹟細考縣在版籍一邑人士之行誼見漏者先輩之仕宦未錄者搜輯不遺詳畧得宜以補闕文使後來君子知是邑有忠亮馬有聞人焉也哉聖上二十二年戊午仲夏知縣全州李鍾淑序

2) 光陽郡誌 序 : 1798년 광양 고을에서 편찬한 향토지로서 당시 이종숙(李鍾淑)현감이 (재임기간:1796~1798) 서문(序文)을 썼음.



사진3-39 : 광양군지 서문(1798년)



사진3-40 : 반구정 옛터

### 10. 伴鷗亭序

宋煥箕

白鷗 江湖之鳥也 生於江湖 養於江湖 飢食江湖之魚 渴飲江湖之水 遊戲自樂 長在江湖之間 是以人之處江湖者 白鷗相伴也 今處士李琛漢性本樂水 立於江上 名之曰伴鷗亭 一間茅屋 影落白鷗洲也 嗚呼 伴鷗之名 不虛得也 日照長江 白鷗搖漾 可伴者白鷗也 月滿長洲 白鷗來往

可伴者白鷗也 風清花浪 白鷗泛泛 可伴者白鷗也 煙波十里 白鷗浮沈 可伴者白鷗也 夕陽江天 白鷗飛鳴 可伴者白鷗也 然則 白鷗 無時不伴也 是以 主人因白鷗之可伴而伴之 既得其樂 貴江湖之至樂 而生涯寄一葉之舟 事業付一竿之釣 自以爲江湖之逸士 而以白鷗爲江湖之好伴 不但伴之而亦以之名亭 遊於此亭 歌舞之 談笑之 必於此亭 而不離於江湖之伴也 然 白鷗無心 人自伴之 人亦無心 白鷗自以爲伴 人無心 白鷗無心 豈非無心之人也耶 嗚呼 無心之伴是爲眞伴 若夫世間之相伴者 不能無心 心功名而伴之 心富貴而伴之 豈爲伴也 豈能長久乎也哉 嫌疑生於須臾 雲雨作於反復 平生相伴之心 一朝反爲仇讐 曷若伴湖無心之伴 春秋而伴之 暮朝而伴之 逍遙於相伴之時 府仰於相伴之日 百年相伴 不渝相伴之 盟也哉 噫 以有心伴之 則天下之物 莫非有心之伴也 以無心伴之 則天下之物 莫非無心之伴也 豈但白鷗也哉 吾嘗問於主人以白鷗名亭 與白鷗相伴之眞趣何哉 主人笑而不答 徘徊江上 詠黃山谷演雅卒章 曰江 南野水 碧於天中 有白鷗閒似我

崇禎己酉 恩津 宋煥箕 誌

### 10. 반구정서<sup>3)</sup>

송환기

백구(白鷗)는 강호(江湖)의 새이다. 강호에서 나서 강호에서 자라고 주리면 강호의 고기를 먹고, 목마르면 강호의 물을 마시고, 놀고, 희롱하며 스스로 즐거워하며 오래도록 강호에 있으니 사람이 강호에 처하는 것이 백구와 서로 짝하는 것이다.

지금의 처사(處士: 벼슬을 하지 않는 선비) 이채한(李琛漢)은 본래 성품이 물을 좋아하기에 강위에 반구정이라는 정자를 세워 이름하였다. 이 한

3) 津月面 望德里 望德山위에 있었다. 副護軍 李琛漢이 이곳의 경치에 매혹하여 세웠다.

칸의(茅屋 : 띠로 지붕을 이은 집)의 그림자가 백구주(白鷗洲)에 비치니 아! 반구의 이름은 헛되이 얻은 것이 아니로다. 해는 강을 길게 비추고 백구가 물결을 일으키니 가히 짝하는 자 백구로구나. 달이 장주(長洲)에 찰 때 백구가 물위를 왔다갔다하니 가히 짝할 수 있는 것은 백구이며 맑은 바람에 물결은 일고 백구가 떠다니니 가히 짝하는 자 백구이며 이러한 물결(煙波)<sup>4)</sup>이 십리나 뻗어 백구가 떴다 가라앉았다 하니 가히 짝할 수 있는 것은 백구이며, 석양강(夕陽江) 하늘에 백구가 울음 섞인 소리로 날아다니니 가히 짝할 수 있는 것은 백구로구나.

이러하므로 주인은 백구를 짝할 수 있기에 짝을 하여 이미 그 즐거운 것을 얻고 강호에서의 지극히 즐거운 것을 귀하게 여겼다. 생애는 일엽(一葉)의 편주(片舟)에 보내고 하는 일은 낚시질에 맡기에 스스로 강호에 숨은 선비되고 백구로 하여 강호의 좋은 짝이 된다 하며 단지 짝을 할 뿐만이 아니고 정자에도 이름하였다. 이 정자에서 노래하고 춤추며, 말하고 웃는 것도 반드시 이 정자에서 하니 강호의 짝과 떨어지지 아니하려는 까닭이다. 그러나 백구는 무심하여, 사람이 스스로 하였고 사람도 또 무심하여 백구가 스스로 짝을 하였으니 사람도 무심하고 백구도 무심하니 어찌 사람이 무심하다 아니할 수 있겠는가? 아! 무심의 짝은 이것이 참다운 짝이다. 무릇 세상의 서로 짝하는 자는 무심이라 할 수 없다. 마음속으로 공명을 갖고 짝하며 마음 속으로 부귀를 누리려 짝을 하니 어찌 짝이라 할 수 있으며 어찌 능히 장구(長久)하겠는가? 꺼리고 의심함이 순식간에 나고 모름지기 은택은 반복하여 평생을 서로 짝한 마음이 하루아침에도 도리어 원수가 되니 어찌 그 짝이 호수의 무심한 짝과 같겠는가?

봄과 가을로 짝하며, 아침저녁으로 짝하며, 서로 짝할 때 소요(逍遙)하며, 서로 짝할 때 부양(俯仰)하며, 백년을 서로 짝하여도 서로의 짝한 맹세를 어기지 않는 것과 같겠는가? 아! 유심(有心)히 짝한 즉 천하의 만물이 유심의 짝이 아닌 것이 없고 무심히 짝한 즉 천하의 만물이 무심의 짝이 아닌 것이 없구나! 어찌 단지 백구뿐이겠는가?

내가 일찍이 주인에게 「백구」로 정자를 이름한 것과 백구와 더불어 짝한 참다운 취미가 어떠한냐고 물었더니 주인은 웃으면서 대답은 하지 아니하고 강위를 배회하며 황산곡(黃山谷) 연아(演雅) 줄장(卒章)을 읊어 가로되 「강남들의 물은 하늘 보다 푸른데 그 가운데의 백구는 너와 같이 한가롭구나」라고 노래하였다. 승정 기유 은진 송환기.

4) 꽃이 흩어지는 것같이 거품이 나는 물결

## 11. 虎竹齋記

白雲山 鎮南方 雄厚磅礴 向南開帳 中幹大脈 南走十有餘里 蜿蜒起伏以其負山而村者 曰虎岩竹谷兩村也 密陽朴氏居焉 居之未幾 以致財 以登第 門戶聞于茲土矣 今年春 余友泰相 以其宗中僉議之請 來曰吾從曾祖考 進士公 奉母而率四弟 與其從弟 自寶城舊長興 入居虎岩竹谷兩村以遂子孫之計矣 高祖妣淑夫人金氏沒 葬於虎岩村案山艮原 風氣攸聚 隱然如伏虎形焉 往甲子春 建立齋室之議 齊發宗中 勝來泰相魯檜 率先出損基金 則闔門翕然從之 勝來最幹其事 始克竣功 左右凡三間 命之虎竹齋 歲時芬苾 宗中有事 則必聚于斯 闔門之苦待 幸而就焉 然 不有記何以示來者 乎吾以是 訪問也 竊念思之 朴氏入光陽以後 以文學登生進科 兩世得富名 施惠遠近 或以德業 重於士林 或以行誼 標於鄉中 至近世 則得博士 登高試者數人 進于官途 且馳聘于各界 學問事業者 蓋已彬彬有之 指不勝屈 此固人心 恒本于祖先爲善 後孫必昌達 觀於朴氏豈不益信哉 顧今之人 一登斯齋 望其丘墳之上下 瞻松栢而鬱蒼 精靈之涉降 洋洋在茲 則必有賢者 繼承焉 其運勢之隆盛 豈限於一時而已乎 又其門戶之稱譽 豈止於一鄉而已乎

西紀 一九九五年 乙亥小暑節

咸陽 朴禹錫 識

## 11. 호죽재기

백운산이 남방의 진산으로 웅장한 기운 가득차 있으며 남쪽을 향하여 개장하였고 중간(中幹)대맥이 남쪽으로 십여 리를 달리면서 꿈틀꿈틀 기복한 뒤에 산을 뒤로하여 생긴 마을이 호암(虎岩)과 죽곡(竹谷) 두 마을이다. 밀양 박씨가 거주하고 있었는데 거주한지 얼마 안되어 재산을 모으고 과거에 올라 인근에 알려졌다. 금년 봄에 나의 친구 태상(泰相)이 종중의 뜻을 모아 와서 말하기를 「나의 종중조고이신 진사공(進士公)께서 넷 아우와 종제를 거느리고 보성(구 장흥)으로부터 호암 죽곡 두 마을로 들어와서 자손지계를 세우셨으며 고조비 숙부인 김씨가 세상을 뜨시자 호암마을 안산 간좌(艮坐)에 장사하였는데 풍기(風氣)가 모아 은연한 복호형(伏虎形) 같다고 한다. 갑자년 봄에 재실을 건립하는 종중의 논의가 일제히 일어나 승래



(勝來)와 태상(泰相)과 노회(魯檜)가 술선하여 기금을 출연하니 전문중이 흔쾌히 이를 따랐다. 승래가 이 일을 주관하여 준공하게 되니 좌우삼간으로 호죽재(虎竹齋)라 이름하였다. 계절따라 봉사(奉祀)하고 종사가 있으면 화합하게 되었으니 온 종중의 숙원사가 다행히 성취되었다. 그러나 기문(記文)이 없으면 어찌 후생들에게 보일 수 있으리오. 내 이것 때문에 방문한 것이라」 하였다. 그윽히 생각하니 박씨가 광양에 입향한 뒤에 문학으로 진사시(進士試)에 오르고 두 대에 부명(富名)을 얻어 원근에 시혜(施惠)하였으며, 혹은 덕업(德業)으로 사림(士林)에 존경받고 혹은 행의(行誼)로 향중에 모범이 되기도 하였다. 근세에 와서는 박사가 되고 고시에 등용되는 자수인으로 관계에 진출하여 각계에 활동하고 있으며 학문과 사업으로 빛을 내고 있는 것은 셀 수가 없다. 이는 진실로 사람들이 조상에 정성을 드리면 반드시 후손들이 창달(昌達)한다는 것을 박씨에게서 볼 수 있으니 어찌 믿지 않으리오. 지금 사람들을 보건대 능히 근본을 아는 사람이 적다 할 것이다. 하물며 세도(世道)가 날로 내려가고 민덕(民德)이 날로 멀어지고 있으니 비록 자손 중에서도 지취(志趣)가 안맞아 예절을 게을리 한다 할 지라도 한번 이 재실에 와서 산소의 상하에 소나무가 울창한 것을 바라보면 영혼이 오르내리는 것이 확실히 있음을 알고 어찌 분명하고 또 죄송스럽게 생각하여 감동하지 않으리오. 박씨 제손에게 원하노니 더욱 돈독하고 좋은 생각 쉬지않고 수호의 책무를 다 한다면 반드시 현명한 자손이 계승할 것이니 그 운세의 융성이 어찌 한 때에만 한정되며 또 문호의 영예가 어찌 한 고을에만 그칠 수 있으리오.

서기 1965년 을해 소서절에 함양 박우석 짓다.

## 12. 祭新齋崔先生文

門人進士 金麟厚<sup>1)</sup>

維嘉靖十七年 歲次 戊戌越四月甲辰朔 十四日丁巳 門人進士 金麟厚 謹再拜遣人 以清酌庶羞之奠 祭于新齋崔先生之靈 惟靈 高山大壑 龍虎之姿 長身美髯 神骨魁奇 偃仰流波 天絕<sup>2)</sup> 豁然雄放 風月襟期 詞傾三峽<sup>3)</sup> 氣蓋一時 落筆乾坤 風驚鬼馳 金繩鐵索<sup>4)</sup> 上抵軒羲<sup>5)</sup> 悠揚行草 羽毛<sup>6)</sup> 豪橫縱酒跌宕鬪<sup>7)</sup> 羣 彎強發勁 無適非宜 始冠遊都 柏梁之詩<sup>6)</sup> 試于司馬 名在榜眉 怒氣垂天 決乎南爲 突兀瀛洲<sup>7)</sup> 章彙陸離 九遷華省 棲息鳳池<sup>8)</sup> 遭時勇往 許身

1-1) 祭新齋崔先生文(제신재 최선생문) : 신재 최산두(崔山斗)가 기묘사화에 연루되어 15년간(1519-1533)을 화순 동복(同福)에서 유배생활을 하고 있을 때 장성의 하서 김인후(河西金麟厚)가 18세 때인 中宗 22年(1527)에 신재를 찾아가 수학(受學)하였다. 이 때 신재는 하서의 인품을 보고 가을 물에 어름으로 된 병(秋水氷壺)이라고 칭찬하였다. 하서가(22세 때 진사가 되고) 27세 때(1536) 성균관에 있었는데 신재의 부음(訃音)을 듣고 가마(伽麻) (상주가 머리에 두르는 짚에 삼겹집을 감은 둥근테)를 하였고 소상(小祥) 때는 치제(致齋) (제관된 사람이 3일간 부정한 일을 가까이 않고 몸을 깨끗이 하는 일)하였다. 대상(大祥) 때인 中宗 33年(1538)에는 지(支)자 운통(韻通)으로 길게 제문을 짓고 제물을 장만하여 사람을 보내 제를 지냈다. 스승의 사물(死沒)에 가마(伽麻)하는 것은 하서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전한다.

1-2) 新齋崔先生(신재 최선생) : 신재(新齋)는 최산두(崔山斗)의 호

1-3) 金麟厚(김인후) : (1510~1560) 장성(長城) 출신으로 호를 하서(河西) 또는 담제(澹齋)라 하였다. 신재 최산두가 기묘사화에 연루되어 화순 동복에 유배되어 있을 때 신재에게서 수학(受學)한 바 있었다. 中宗 35年(1540)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사가독서(賜暇讀書)하였으며 홍문관(弘文館) 부수찬(副修撰)을 거쳐 부모 봉양을 위해 옥과(玉果) 현감에 부임하였으나 을사사화(乙巳士禍) 이후에 장성으로 돌아와 일체 관직과는 단념하고 오직 학문에만 전념하였다. 후에 문묘(文廟)에 종사(從祀)한 18현(賢) 가운데 한사람이며 시호(諡號)를 문정(文正)이라 하였다.

阜夔<sup>9)</sup> 經綸遠志 肯務污卑 羣猜一發 竟抵險巇 歲丁單闕<sup>10)</sup> 怒馬孤羈 索居丘林 與世相遺 愛彼壺觴 吟嘯以嬉 忘懷得喪 付之一炊<sup>11)</sup> 尙念魏闕 清洛之涯 爰及高堂 鶴髮其垂 桂枝延佇 白雲遙思<sup>12)</sup> 萬里炎涼 踰二七碁 韶顏已皺 霜滿于髭 勅放故里 宸眷以施 斑衣載舞<sup>13)</sup> 凱風還悲<sup>14)</sup> 疾成瘵羸 身未脫衰 天何不仁 而遽奪之 昔余獲見 丁干亥支 載酒黔中 相遇不疑 快談千古 囊篋旋披 二三君子 與相追隨 黃昏一試 賴此大醫 下掃衆作 獨講屈詞 二十五篇<sup>15)</sup> 歷歷肝脾 內激哀怨 外以華擿 呵風叱電 雷迅雨灑 間見層出 水怪山魘 不忍宗國 將胥以危 狂叫永號 鬼神其知 千載紫陽 非子云誰<sup>16)</sup> 嗜逾芻豢<sup>17)</sup> 明柝毫釐 亦曰斯編 有助倫彞 謳吟黜黜 曲折委蛇 優遊飫沃 理順必怡 陟高臨清 花塢柳湄 從遊累旬 所得不貲 逮茲有成 非訓曷資 爾後不繼 時歷歲移 始獲一至 亦其暫而 猶將卷軸 品題黃驢<sup>18)</sup> 短韻長篇 螻蛄蚊螻 刻磨麗樞 借與毛皮 點粧嫫媼<sup>19)</sup> 得列西姬 汲引獎喻 惟日孜孜 護短扶長 望駑以騏 怪我迂疎 文乏蔚斐 見許特異 如鐵遇磁 竊蓄斯疑 幸茲駭癡 補舍國學 適售有司 經辛及壬 慶禮既罷 至庶將命 俟于門墀 輕衣曳杖 出先解頤 曰吾新來 今且何居 官池東閣 海棠滿枝 臨風告別 飲詠依遲 溪山路阻 林麓蔽虧 越明年冬 天脫繫纆 依然破屋 帶以疎籬 拜門驚喜 笑語熙熙 堆盤海介 臥壺倒危 首言衰朽 雨露復滋 漢廷雖遠 敢忘恩私 敬保餘生 傾心藹葵 次言比者 慈病且彌 得有今日 出入扶持 室家康寧 燕及僕兒 末乃屬余 和以熏篿<sup>20)</sup> 或誦古作 提耳指撿 斷雲歸鴉 斜日子規 平生江海 此其永辭 靜言思之 心隕冰而痛毒數載 川嶺透迤 飄泊東西 跡絕屏楮 弔蹠再發 皆沮中達 益慚無將 覩焉怛尼 丙申維夏 余在京師 承凶內怛 沈痛切肌 月落峰摧 若之何其 新居未落 念彼孤夔 薄命之作 重我齋咨 人生自爾 行止有糜 殞未臨次 空不導輜 祥期奄至 且未躬祠 遠侍薄具 爰侑以茲 載念今日 亨嘉有基 梟狼既磔 公論在斯 士氣騶騶 續乎方隳 向來群傑 聯翩羽儀 獨未有年 見此清夷<sup>21)</sup> 永歎增傷 吾道之衰 惟應精爽<sup>22)</sup> 配神與祗 超氣得一<sup>23)</sup> 箕尾是騎<sup>24)</sup> 東窮暘谷<sup>25)</sup> 西薄崑崙<sup>26)</sup> 雷車日轂 玉鸞雲旗 高馳遐舉 汎濫赫戲<sup>27)</sup> 俯睨塵寰 蹶然以嗤 擬賦些章<sup>28)</sup> 神其來祁 尙饗

## 12. 신재 최선생에게 올리는 제문

문인 진사 김인후

가정(嘉靖「明의年號」) 17년(中宗 33年 1538) 무술(戊戌) 4월 갑진삭(甲辰朔) 14일 정사(丁巳)에 문인 진사(進士) 김인후(金麟厚)는 삼가 두

번 절하고 사람을 보내어 술과 제물로써 신재 최선생의 영전에 제를 올리  
읍니다.

생각하옵건대 영(靈)은 높은 산 큰 늪에, 용호(龍虎)의 모습이요, 늘씬한  
몸 좋은 수염, 신골(神骨)이 괴기(魁奇)하셨네. 유파(流波)에 휩쓸려도, 물  
들세라 닦일세라. 웅장하고 호방(豪放)하여, 가슴 속은 바람과 달이 있었  
네. 문장은 삼협(三峽)물을 쏟고, 기개(氣蓋)는 세상을 뒤덮었네. 붓 휘들  
은 그 천지에, 바람 놀라고 귀신 치단네. 금 노끈 쇠 새끼, 위로 희현(羲軒)  
에 맞닿았네. 드날리는 행서(行書) 초서(草書), 깃과 털이 대롱다롱. 술 대  
하면 건아하고, 바둑 두면 질탕(跌宕)했네. 활 당기기 · 화살 쏘기, 어느 것  
을 못하리오. 약관시절 서울에서, 백량대(柏梁臺) 시를 지었네. 진사과에  
시험보아, 이름이 방(榜)에 걸렸네. 대봉(大鵬) 새 날개 펼쳐, 남쪽 바다 옮겨  
갔네. 우뚝한 영주각(瀛州閣)에, 장주(章奏)가 찬란했네. 아홉 차례 화  
성(華省) 옮겨, 봉황지(鳳凰池) 넘놀았어라. 시대 만나 길이 되어, 고기(皋  
夔) 사업 자처하였네. 경륜(經綸)하는 멀고 큰 뜻, 비루한 일 힘쓸손가. 못  
시기가 일어나서, 마침내는 험한 길이였네. 해는 마침 단알(單闕)이라, 외  
롭나니 귀양살이. 산속에 떨어진 삶, 세상과는 서로 잊고. 술잔만이 나의 사  
랑, 읊으면서 놀았네. 득실(得失) 따윈 마음 잊어, 잠시의 밥짓는 것에 부쳤  
다오. 생각 나는 것 대궐, 맑은 저 한강 가에... 생각이 양친에게 미칠 적에,  
학발(鶴髮)이 두리었다네. 계수가지 부여잡고, 흰 구름을 바라 보았네. 가  
고 오는 추위 더위, 만 14년이 되었네, 고운 얼굴 주름 지고, 귀밑털은 하얀  
서리 되었네. 풀러나 고향 온건, 돌봐주신 임의 은혜라네. 색동 옷에 춤을  
추었으나, 개풍(凱風) 문득 슬픔 되었다네. 병이 들어 여위어도, 상복(喪  
服) 벗은 적이 없었네. 하느님도 야속하지, 왜 빨리도 앓아가는고.

내 처음 뵈은 해는 헤어보니 정해(丁亥)로세. 검중(黔中)에 술을 싣고,  
서로 만나 기탄 없었네. 천고(千古) 일을 이야기하며, 쌓아 놓 책 펼쳐 놓았  
네. 두 세명의 선비들이 서로 함께 추종하였네. 황혼 길에 한번 시험하니,  
큰 의원(醫員)의 힘 입었소. 못 작품을 쓸어내고, 굴원(屈原)의 사부(詞賦)  
익히기만 하였네. 스물이라 다섯 편이, 간비(肝脾) 속에 역역(歷歷) 하였  
네. 솟구치는 슬픔 원망, 화려할사 문조(文藻一文章)로세. 바람 일듯 번개  
치듯, 빠른 우리 소낙비였네. 간간층층(間間層層) 나타나는, 바다 괴물 산  
도깨비였네. 조국의 위태로움. 서로 차마보지 못하겠네. 소리치며 외치더  
니, 귀신인들 왜 모르리오. 천년이라 자양(紫陽=朱子)은, 선생이 아니시고

- 2) 天絕(천절인치) : 유파(流波)에 휩쓸려도 닦이거나 물들지 않는다는 말.
- 3) 詞傾三峽(사경삼협) : 두보(杜甫)시에 문장 도류삼협수(文章倒流三峽水)라는 글귀가 있는데 즉 문장이 뛰어나 양자강의 험난한 삼협(三峽)의 강물을 거꾸로 흐르게 할 정도로 위대하다는 뜻
- 4) 金繩鐵索(금승철색) : 필세(筆勢)를 형용하는 말
- 5) 軒輶(현희) : 중국 상고의 현원(軒輶)과 복희(伏羲)의 합칭(合稱)임.
- 6) 柏梁臺(백량대) : 중국 한(漢)의 무제(武帝)가 백량대를 짓고 군신(群臣)과 더불어 시를 지었다는 고사(故事)가 있는데 여기서는 백량대를 글제목으로 삼아 시를 지어 진사과(進士科)에 응시했다는 말
- 7) 瀛洲閣(영주각) : 조선시대의 홍문관(弘文館) 즉 옥당(玉堂)을 말함.
- 8) 鳳池(봉지) : 금원(禁苑)에 있는 못
- 9) 皋夔(고기) : 요순 시대의 어진 재상
- 10) 單闕(단알) : 고갑자(古甲子)로 치면 모년(卯年)에 해당함. 한(漢)나라 가의(賈誼)가 귀양갔을 때가 묘년(卯年)이고 신재가 귀양갈 때도 중종 14년 기묘(己卯)년이므로 서로 같다고 하여 인용(引用)한 것임.
- 11) 付之一炊(부지일취) : 세상의 부귀 영화가 술에서 밥할 때와 같이 잠깐이며 허망하다는 뜻임.
- 12) 白雲遙思(백운요사) : 당(唐)의 재상 적인걸(狄仁傑)이 산에 올라 백운(白雲)을 바라보며 말하기를 '내어 버이가 저아래 계시다.'라고 고한 고사(故事)를 인용한 것.
- 13) 斑衣(반의) : 노재자(老萊子)가 채의(彩衣)를 입고 춤을 추며 늙은 어버이를 즐겁게 한 고사(故事)가 있어 부모를 모신 사람에게 쓰는 말이 되었음.

- 14) 凱風(개풍) : 시경(詩經)의 편명(篇名)인데 효자가 그 어머니를 잘 봉양하지 못하여 자책(自責)한 시(詩)이다.
- 15) 二十五篇(이십오편) : 중국 전국시대의 정치가이자 비극시인 굴원(屈原)(BC 343?~BC 277?)이 지은 글.
- 16) 千載紫陽 非子云誰(천재자양 비자운수) : 자색(紫色)의 태양인 자양(紫陽)은 주자(朱子)를 가르키는 말인데 그 학문과 정신을 계승하시는 분은 신재 선생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라는 뜻으로 신재를 최고로 추앙하는 말임. 단 하서집(河西集)에는 비자운수(非子雲誰)로 되어있고 희양문헌집(曦陽文獻集)에서는 비자운수(非子云誰)로 되어있다. 자운(子雲)은 한(漢)나라 때의 대학자였으나 왕망(王莽)의 신(新)나라에 아첨한 양웅(楊雄)의 자(字)이다. 이 계문의 문맥으로 보아 뜻밖에 간신(奸臣) 양자운이 나타난 것은 불합리하고 하서(河西)가 신재(新齋)를 주자(朱子)에 견주어 추모한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 17) 芻豢(추환) : 초식(草食)하는 것을 추(芻)라하여 소나 염소를 말하고 곡식(穀食)하는 것을 환(豢)이라하여 개나 돼지를 말한다. 맹자(孟子)는 이의(理義)가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은 추환(芻豢)이 입을 즐겁게 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 18) 黃驢(황려) : 중국의 열자설부(列子說符)에 진목공(秦穆公)이 구방고(九方臯)로 하여금 말을 구해 오게 하여 석달만에 돌아오자 목공은 『무슨말을 구했는가』 물으니 『암컷(牝)이요 황색입니다. 하므로 사람을 시켜 보고 오게하니 수컷(牡)이며 검은색(驪=黑馬)이었다. 말을 잘 알아 보는 백락(伯樂)이 탄식하여 말하기를 『구방고가 보는 것은 천기(天機)이니 그 정

누구겠습니까. 추환(芻豢)보다 사뭇 즐겨, 호리라도 환이 분석하네. 또 이 르기를 이 엮음이, 윤강(倫綱)에도 도움 되라 하셨네. 읊조리고 노래하며, 구석구석 이모저모 찾았네. 배 불리고 기름지니, 이(理) 순(順)하고 마음 흐뭇하였네. 산 오르고 물 다다라, 꽃 동산 버들 강변이네. 몇 열흘날을 종유(從遊)하니, 얻은 것 하도 많았었네. 이만큼 이론 것도, 교훈의 덕 아니겠소. 이후로는 계속 못해, 때 지나고 해 옮겨갔네. 겨우 한번 가봤지만 이도 역시 잠깐이었네. 그래도 권축(卷軸) 들고, 좋다 곳다 품평 받았네. 단편이며 장편에다, 지렁이와 이무기였네. 거친 뉘쌀 갈아 벗기고, 털과 거죽 빌려 주었네. 모모(嫫母) 무염(無鹽) 화장 시켜, 서시(西施)에게 견주었네. 끌어 주고 올려 주어, 날로 날로 부지런 하였네. 단점 덜고 장점 키워, 조랑말을 천리말로 하였네, 내 성글고 오활하여, 글 숨치 줄렬하였네. 남 다르게 허여(許與)하여, 쇠가 자식 만난 듯 하였네. 쌓인 의문 풀어주니, 무지한 몸 행(幸)이었네. 대학의 제생(諸生)되니, 유사(有司)에게 팔렸던 것이 었네. 신묘(辛卯) 거쳐 임진(壬辰)년에, 경례(慶禮)가 파하였네. 행랑에 와 명(命)청하고, 뜨락에서 기다렸네. 가변 옷에 막대 끌고, 나자마자 옷으셨네. 나는 새로 여기 왔네, 요새 우선 어떤가 하셨네. 관지(官池)라 동각(東閣)에는, 가지 가득 해당화(海棠花)라. 바람 향해 고별하니, 술 마시고 읊조렸네. 계산(溪山)이라 길은, 숲 기슭은 덮여 있었네. 명년이라 겨울철에, 귀양살이 벗어 났네. 전과 같은 부서진 집, 둘러있는 성긴 울이었네. 절 올리자 반기면서, 따뜻한 웃음 얘기. 상에 오를 바다 조개, 병 술을 기울였네. 첫 말씀 쇠한 몸을, 임의 은혜 불러 주셨네. 조정 비록 멀다 하지만, 사은(私恩) 감히 잊을 손가. 삼가 여생 보존은, 해바라기 정성이라네. 다음 말씀 요즈음에 모친 병환 더 하신다네. 오늘 날이 있게 되어, 우선 부지 하신다네. 집안 식구 편안하고, 종아이들 탈 없다네. 끝으로 나에게 훈지(熏漬)로써 형제간에 화협하라 하셨네. 예 작품도 외워주시며, 귀를 끌어 지휘하셨네. 뭇개 구름 같 까마귀, 바깥 해가 반바퀴 되었네. 강과 바다 한 평생에, 영 이별이 이거였소. 고요히 생각할수록, 애를 끊는 눈물 콧물이네. 몇 해 동안 쓰라린 독, 강산이 아득 아득 하기만 하네. 동쪽 서쪽 떠돌자니, 찾아 뵈울 겨를 없었네. 두 번 띄운 조문 편지, 중도에서 다 잠겼었네. 상(喪) 없는 이 몸 더욱, 얼굴 붉어 부끄럽소. 병신(丙申)이라 여름철에, 내 서울에 갔었오. 부고 받고 너 무 슬퍼, 살을 에는 침통이었네. 달(月)지고 산 무너지듯 하니, 어찌들 하오 리까? 새 집조차 낙성 못해, 외론 과부 염려되네. 기박한 운명 장난, 나의 한

은 거듭 거듭이네. 인생이란 그런건가, 오고 감도 뜻대로 아니되니... 빈(殯)할 때도 참례 못하고, 장례에도 상여 못 메었네. 상기(祥期)가 닳았어도, 몸소 제사 못 모셨오. 멀리서 제물 장만하여, 이를 전해 올립니다. 생각하면 오늘날에, 좋은 정치 터가 잡혔소. 악한 놈들 제거되니, 공론(公論)이 정해졌오. 사기(士氣)도 차츰 살아, 무너졌다 이어졌오. 요즘 와선 못 호걸들, 줄을 이어 등용되었오. 유독 수(壽)를 못 누리어, 태평 세상 못 보시다니... 한탄한들 어찌 하리오, 우리 도(道)가 쇠잔(衰殘)한 것을. 응당히 그 정상(精爽)은, 천지신령 짝을 하였을 것이며 티끌 밖에 하나(一)를 얻어, 기미성(箕尾星)을 잡아 닳을 것이오. 동쪽으로는 양곡(陽谷)에서, 서쪽으로 엄자(嶮岨)까지. 천둥 수레 해 바퀴와, 옥(玉) 방울에 구름 깃발이오. 멀리 들고 높이 달려, 저 공중을 두루 돌 것이요. 티끌 세상 굽어보시고, 병실 병실 웃으시리다. 초사부(楚些賦)에 비기노니, 신(神)이시여 천천히 내려 흠향하시길 바랍니다.

### 13. 祭 梅泉 黃先生文<sup>29-1)</sup>

世弟 宋柱賢<sup>29-2)</sup>

維歲次 庚戌十月辛未朔十九日己丑 世弟宋柱賢 遣子夏燮 以薄奠 哭訣于梅泉畏兄之靈 曰嗚乎 飛舞萃氣 雲山之淑 惟公秀出 河嶽攸毓 冰壺之潔 金玉之良 早遊京師 遂成文章 表準一世 令望全湖 足躡龍門 手摘驪珠<sup>30)</sup> 粵自里閭<sup>31)</sup> 如弟如兄 世交既重 與我同庚 蘭蕙連香 雲龍托情 及此晚暮 西至分離 勞燕東西<sup>31)</sup> 參商參差 隔年相見 盃樽迂踈 有時相聞 只憑尺書 嗟乎 世道蒼黃 哲人<sup>32)</sup> 愛國忘身 捨生取義 島海之節 首陽之風 山岳<sup>33)</sup> 日星炳耀 我以私慟 熱淚如雨 停雲渺渺 俯仰今古 路遠西州 遺愛東里 已違執紼 徒功慙愧 薄奠蕪辭 以表賤<sup>34)</sup> 不昧者存 庶幾來歆

### 13. 매천 황선생에게 올리는 제문

세제 송주현

경술(庚戌 1910) 10월 신미삭(辛未朔) 19일 기축(己丑)에 세교의 아우 송주현(宋柱賢)은 아들 하섭(夏燮)을 보내 변변치 못한 제물로 올면서 매천 외형(畏兄)의 령(靈)에 영결(永訣)을 합니다.

(稱)을 얻고 더러운 것을 잊은 것이며 그 안(內)에 있고 그 밖(外)을 잊은 것이다」 하였는데 그 말이 과연 천하의 양마(良馬)라 하였음.

19) 嫫母(모염) : 모모(嫫母)와 무염(無鹽)의 합칭(合稱)임. 열녀전(烈女傳)에 의하면 「모모(嫫母)는 황제(黃帝)의 비(妃)인데 얼굴은 심히 추하나 현행(賢行)이 있었다.라 했으며 무염(無鹽)은 옛 지명(地名)으로 전국시대 제신왕(齊宣王)의 왕비인 추녀 종이춘(鍾離春)이 이 고장 사람이라고 한다. 이는 추(醜)한 것이 미(美)를 견준다는 뜻임.

20) 壘(레이) : 모든 악기(樂器)인데 후세에 형제 화목의 말로 쓰고 있음.

21) 淸夷(청이) : 청평(淸平) 또는 승평(昇平)과 같은 뜻임.

22) 精爽(정상) : 정신과 같은 뜻임.

23) 得一(득일) : 노자(老子)가 하늘은 하나(一)을 얻어 맑고 땅은 하나를 얻어 안정하고 왕은 하나를 얻어 천가가 바로 선다 하였다.

24) 箕尾(기미) : 기(箕)와 미(尾)는 28숙(宿)의 별 가운데 있는 별의 이름

25) 陽谷(양곡) : 해가 뜨는 곳을 말함.

26) 嶮岨(엄자) : 해가 지는 곳의 산이름

27) 赫戲(혁희) : 광명의 뜻인데 하늘을 가르키는 말

28) 些章(사장) : 중국 전국시대 굴원(屈原)의 제사 송옥(宋玉)의 초혼부(招魂賦)를 말함. 이 부(賦)는 구절마다 사(些)자로 끝맺었는데 송옥은 그 스승 굴원이 죄 없이 쫓겨나 죽은 것을 슬퍼하여 혼백이 흩어져 돌아오지 못할까 두려워서 지은 것임.

29-1) 祭梅泉黃先生(제매천 황선생문): 매천황현(梅泉黃玟)이 1910년 망국의 통한을 품고 음독자결(陰毒自決)했을 때 전국에서 조시(弔詩)를 지은 사람이 155명 총 432수(首)였으며 제문(祭文)은 51명이 지었다. 그 가운데 매천의 유년시절 스승인 석서송정호(石西宋廷浩)는 매천 절명시(絶命詩)에 차운(次韻)한 칠언절구(七言絶句)의 4수와 그 아들 후석 송주현(後石宋柱賢)은 제문을 지었고 그 손자 서파 송하섭(西坡宋夏燮)은 칠언율시(七言律詩) 4수를 지어 올랐다. 한 집안에서 조자손(祖子孫) 3세가 조시(弔詩)와 제문은 지은 것은 휘귀한 일이라 할 것이다.

29-2) 宋柱賢(송주현): (1855~1935) 봉강면 석사리(石社里) 석현(石峴) 출신으로 매천 황현(梅泉黃玟)과는 동갑(同甲)으로 호형호제(呼兄呼弟)하는 사이였기에 자칭 세제(世弟) 즉 세교의 아우라 하였다. 가학(家學)을 계승하여 명망이 높았다.

30) 驪珠(여주): 여의주(如意珠)를 가르키는 말. 용(龍)의 턱아래 있다고 하는 구슬로 사람이 이것을 얻으면 마음 대로 부릴 수 있다고 함.

31) 勞蕪東西(노연동서): 노(勞)는 박노(博勞)의 준말로 검은 까치를 말한다. 검은 까치나 제비가 각각 한 곳에 있다가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진다는 것은 같은 곳에 살고 있는 친구가 분리(分離)되어 있는 것을 말한 것임.

아! 날고 춤추며 뭉친 기운은 백운산의 맑음에서요. 오직 공(公)이 빼어났으니, 강하(江河)와 산악(山嶽)의 기운이 길러 났음이에요. 얼음의 병과 같이 깨끗했고, 좋은 금과 옥과 같았네. 일찍 서울로 가서, 문장이 되었네. 한 세상의 표준이요, 전 호남의 촉망이었네. 진사의 등용문(登龍門)에 올랐고, 손에는 여의주(如意珠)를 땀네. 아! 한 마을에서 파피리(箏笛) 대말(竹馬)로, 형제와 같았네. 세교(世交)가 두터웠고, 나와는 동갑(同甲=同庚)이었네. 난초의 향기 연해졌고, 청운의 뜻을 같이 했네. 늘으막에 이르러, 어찌 나누어 질 줄이야. 검은 까치나 제비가 동서로 갈라져, 삼별(參星)과 상성(商星)이 떨어진 것과 같았네. 해를 넘겨보지 못하니, 술잔도 소홀해졌네. 때로 소식 듣는 것은, 편지에 의탁함이었네. 아! 세상이 어찌할 수 없게 되니, 철인이 초채(憔悴=憔悴)해 졌네. 나라를 사랑하고 몸을 잊으니, 생명을 버리고 정의를 취했네. 험난한 섬이나 바다라도 가는 절개이며, 백이(伯夷)가 수양산(首陽山)에서의 모습이네. 산악(山岳)은 드높기만 하고, 해와 별이 빛나기만 하네. 나의 사사로운 통곡, 뜨거운 눈물 비와 같네. 머물러 있는 구름이라도 멀기만 하고, 이제나 옛을 우러러보고 굽어보네. 길은 서쪽 골 같이 멀기만 하나, 사랑은 동쪽 마을에 남아 있네. 이미 상어를 잡아당기지 못하였으니, 부질없이 부끄럽기만 하네. 변변치 못한 제물과 거친 글로, 보잘 것 없는 정성 표하옵네. 어둡지 않은 영(靈)은 계실 것이니, 오셔서 흠하소서.

집필 : 한국한시협회 회원 박종길